

ABARES 2014년 낙농 전망*

김 현 중 · 이 용 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 · 초청연구원)

호주농업자원경제과학국(Australian Bureau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and Sciences, ABARES)은 2014년 3월 주요 농축산물에 대한 수급 및 가격에 대한 전망 결과를 발표하였다. 낙농부문에서는 세계 유제품 가격 전망, 호주를 비롯한 주요국들의 유제품 수급 및 수출 전망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ABARES에 의하면, 세계 유제품 가격은 신흥 경제국들의 유제품에 대한 수요 강세로 단기에 높게 유지될 것이며, 중기에는 주요 유제품 수출국들의 생산 및 수출 증가로 유제품 실질 가격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호주의 원유(raw milk)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 본 내용은 호주 ABARES의 「2014 OUTLOOK Agricultural commodities」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kim1025@krei.re.kr 02-3299-4021).

1. 세계 유제품 가격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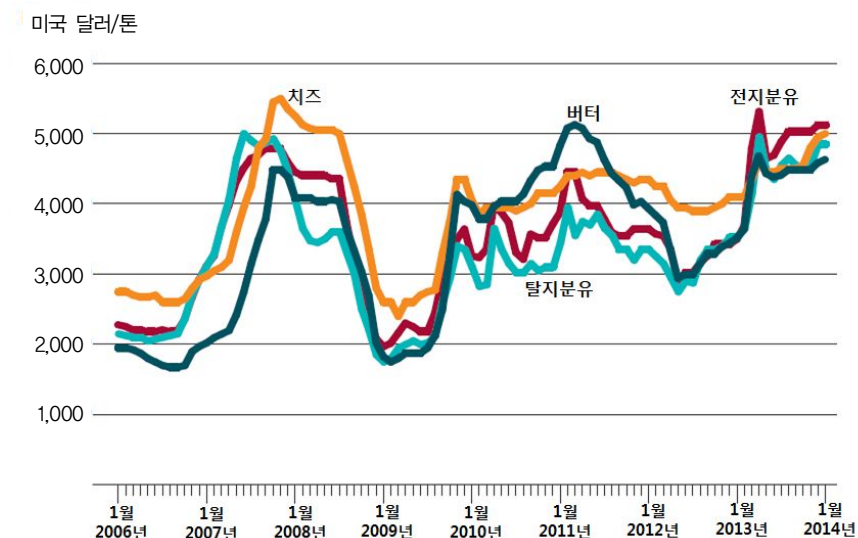
1.1. 단기 가격 전망

세계 유제품 가격은 2014/15(2014년 4월~2015년 3월)년에 중국, 동남아시아, 중동과 같은 신흥 경제국들의 유제품에 대한 수요 강세로 전년보다 상승할 전망이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주요 유제품 생산 및 수출국들의 유제품 생산량 증가로 인해 세계 유제품 가격 상승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3/14년 세계 유제품 가격은 2012/13년보다 16~26%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중국 등에서의 수입 유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데다 주요 유제품 수출국에서의 원유 생산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2014/15년도 세계 유제품별 가격을 보면, 전지분유와 탈지분유 가격이 각각 톤당 5,220달러(미국 달러)와 4,815달러로 전년보다 약 2% 상승할 전망이다. 2014/15년 세계 치즈 가격은 톤당 4,920달러로 전년보다 3% 상승하고, 버터 가격은 톤당 4,665달러로 전년보다 2% 상승할 전망이다.

그림 1 세계 유제품 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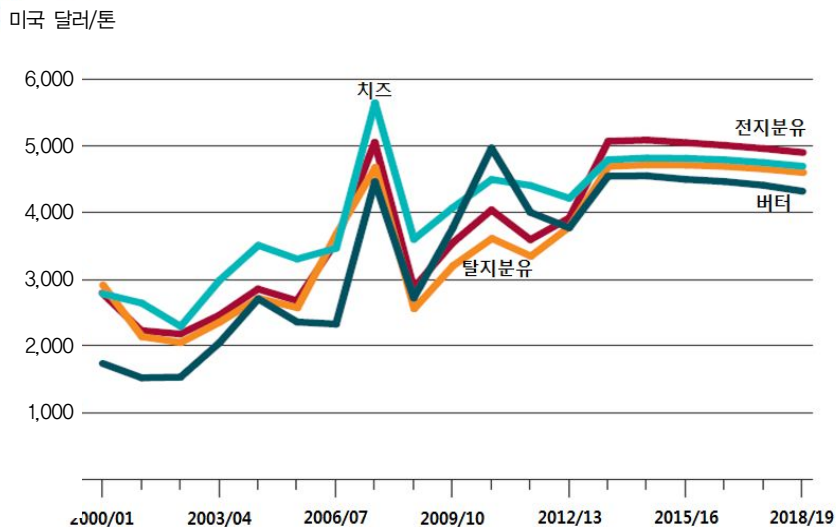


자료: Caitlin Murray, 「2014 OUTLOOK Agricultural commodities: Dairy Outlook to 2018-19」, ABARES, 2014.

1.2. 중기 전망

인구 증가, 소득 향상, 그리고 아시아, 중동, 북아프리카에서의 서구화된 식습관 등으로 인해 유제품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유제품 수요 증가가 향후 몇 년 동안의 유제품 가격을 지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세계 원유 생산량이 증가하여, 세계 유제품 실질(2013/14=100) 가격은 장기적으로 완만하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망기간 동안의 세계 유제품 가격은 2008/09~2012/13년의 평균 가격보다는 10%에서 40% 정도 높은 수준이다.

그림 2 세계 유제품 가격 전망



주: 유제품 가격은 실질가격(2013/14=100)이며, 2015/16년부터는 ABARES의 전망결과임.
 자료: Caitlin Murray, 「2014 OUTLOOK Agricultural commodities: Dairy Outlook to 2018-19」, ABARES,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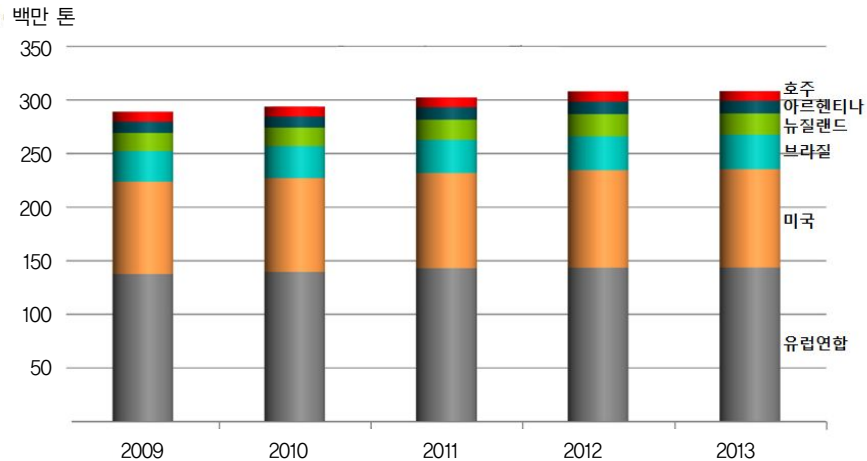
2. 세계 유제품 공급 전망

주요 유제품 수출국들의 2014/15년 원유 생산량은 농가 원유 판매 가격의 상승, 사료 곡물 가격의 하락, 두당 산유량의 향상으로 증가가 예상된다. 중기적으로도 주요 유제품 수출국들에서의 원유 가격이 높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어 원유 생산량은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인도, 중국, 브라질 등 신흥 경제국들의 원유 생산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이는 신흥 경제국들이 자국 내에서의 유제품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낙농 부문에 투자를 늘리고, 마리당 산유량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림 3 주요 유제품 수출국들의 원유 생산량



자료: Peter Collins, 「The outlook for Dairy: Outlook to 2018-19」, ABARES, 2014.

2.1. 유럽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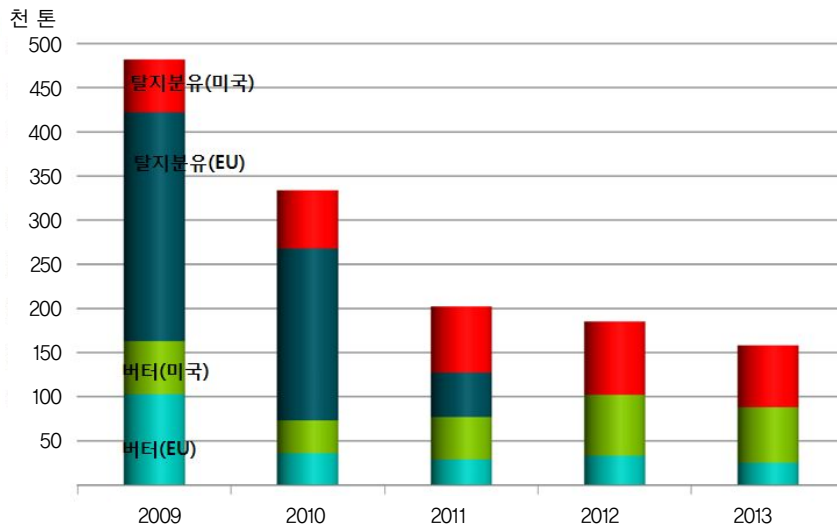
유럽연합의 2014/15년 원유 생산량은 원유 생산 비중이 큰 회원국들에서의 농가 원유 판매 가격이 높아 전년보다 증가한 1억 5천만 톤으로 전망된다. 2013/14년 원유 생산량은 일부 회원국들의 건조한 기후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년에 비해 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원유 생산량 추정치는 유럽연합의 원유 쿼터량에는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과거에도 원유 쿼터량을 밀도는 수준에서 원유가 생산되었는데, 2012/13년, 2011/12년 원유 생산량은 쿼터량보다 각각 6%, 4.7% 낮은 수준이었다. 유럽연합의 원유 생산 쿼터제(milk production quota)가 2015년 4월 1일부터 종료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원유 쿼터량 증가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12/13년 유럽연합의 원유 생산량 중,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폴란드, 네덜란드의 생산량 비중이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회원국들의 원유 생산량 증가로 인해 원유 쿼터제가 종료되는 2015년 이후에도 유럽연합의 원유 생산량은 증가가 예상된다. 향후 마리당 생산성이 높은 회원국들의 원유 생산량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마리당 생산성이 낮은 회원국들의 원유 생산량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원유 생산량 중에서 치즈 생산에 투입될 원유 비율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유럽연합의 1인당 치즈 소비량은 지난 10년의 연평균 증가율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증가가 예상되며, 치즈 수출량 또한 수출 시장에서의 치즈 수요 강세로 증가할 전망이다. 치즈 생산 과정의 부산물인 유장분말은 주로 조제분유나 스포츠 음료에 이용되는데, 유장 분말의 수출량도 중기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그림 4 미국과 유럽연합의 탈지분유와 버터 재고 추이



자료: Caitlin Murray, 「2014 OUTLOOK Agricultural commodities: Dairy Outlook to 2018-19」, ABARES, 2014.

2.2.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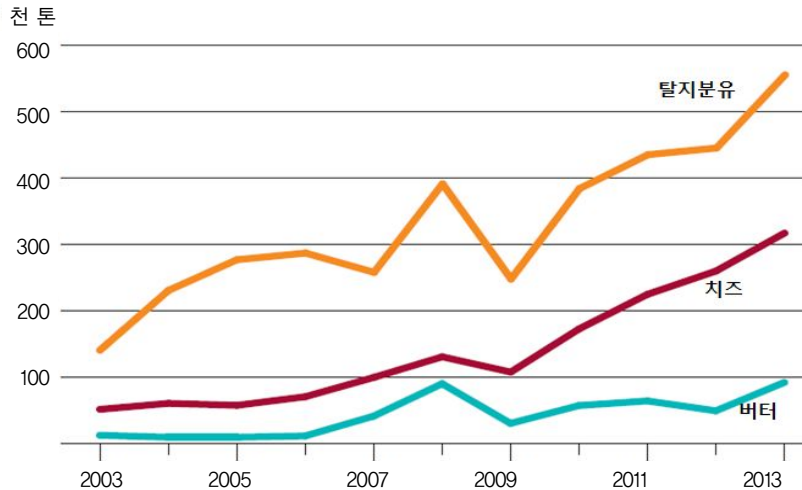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2013년에 전년보다 소폭 증가하였고, 2014년에는 9,300만 톤으로 전년보다 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유 생산량의 증가는 지난 몇 년 동안의 젖소 사육 두수 감소 이후, 농가 원유 판매 가격과 사료 가격 하락 등으로 미국 낙농가의 사육 여건이 호전되어 젖소 사육 두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2013년 버터, 치즈, 탈지분유의 수출량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기후 여건 때문에 2013년 상반기 뉴질랜드와 유럽연합의 유제품 수출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2014년에는 뉴질랜드와 유럽연합의 유제품 수출물량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미국의 유제품 수출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2013년에 비해 다소 감소할 전망이다.

중기적으로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마리당 산유량 증가와 유리한 세계 유제품 가격

여건 등으로 증가가 예상되며, 미국의 유제품 수출량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서는 음용유보다 치즈와 요구르트 등 가공유제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미국의 음용유 소비는 계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5 미국의 유제품별 수출량 추이



자료: Caitlin Murray, 「2014 OUTLOOK Agricultural commodities: Dairy Outlook to 2018-19」, ABARES, 2014.

2.3. 뉴질랜드

뉴질랜드 원유 생산량은 2013/14년에 전년보다 5%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2014/15년에도 전년보다 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가 원유 판매 가격이 높게 형성됨에 따라 2012/13년 젖소 사육 두수는 660만 두로 전년대비 2% 증가하였다. 사육두수 증가는 기존 소와 양의 방목지가 낙농으로 전환되고 있는 뉴질랜드 남섬(South Island)에서 대부분 이루어질 전망이다. 농가 원유 판매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2013/14년과 2014/15년에도 젖소 사육두수의 증가가 예상된다.

뉴질랜드의 중기 원유 생산량은 과거 5년의 성장률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젖소 사육두수 증가와 마리당 산유량의 증가에 따라 증가할 전망이다.

뉴질랜드의 유제품 수출은 중국의 유제품 수요 강세로 증가가 예상된다. 뉴질랜드는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다른 유제품 수출국보다 낮은 관세로 중국에 유제품 수출이 가능하다. 두 나라간 FTA 체결로 뉴질랜드산 유제품의 관세는 2019년에 철폐될 예정이다.

2.4. 남아메리카

2014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원유 생산량은 예상보다 높은 농가 원유 판매 가격과 사료비의 하락으로 약 3% 증가가 예상된다. 유사비(원유 가격/사료비)의 증가로 두 나라 모두 젖소 사육 규모의 확대가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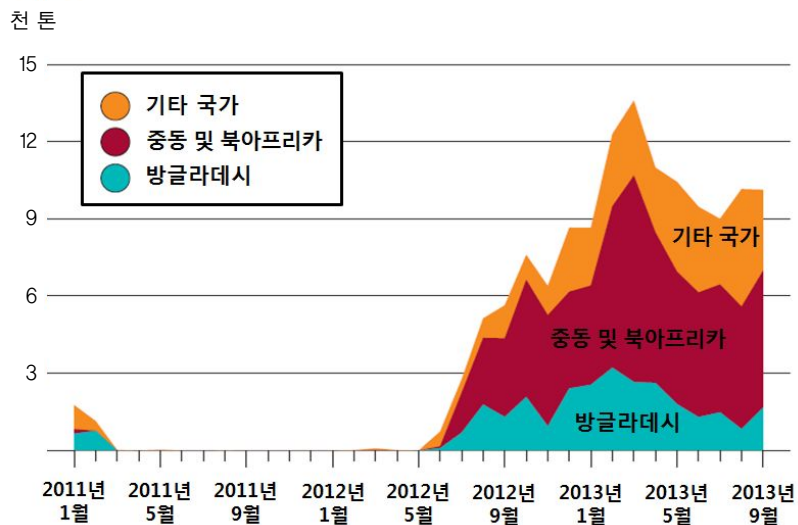
중기 원유 공급은 마리당 산유량의 증가와 더불어 투자의 확대로 두 국가 모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대보다 높은 수익에 따른 새로운 장비 개발 및 낙농기술에 대한 투자로 생산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2.5. 인도

인도의 2014년 원유 생산량은 우유 및 유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 증대, 높은 농가 원유 판매 가격과 낙농업에 대한 투자 확대로 전년대비 5% 증가한 1억 4천만 톤을 기록할 전망이다. 젖소 개량을 위한 정부 지원과 높은 농가 원유 판매 가격으로 인도의 젖소 사육 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에서 생산된 원유 중 대부분은 주로 국내시장에서 신선우유와 유제품으로 소비된다. 생산된 원유 중 신선우유 또는 유제품의 원료로 판매되고 남은 약 40%의 원유는 농가에서 소비된다. 최근 다양한 유제품이 생산되면서 인도의 유가공 산업은 빠르

그림 6 인도의 탈지분유 수출현황



자료: Caitlin Murray, 「2014 OUTLOOK Agricultural commodities: Dairy Outlook to 2018-19」, ABARES, 2014.

게 성장하고 있다.

인도는 원유 생산량이 국내 소비량을 초과할 경우 탈지분유, 버터, 정제버터(ghee) 등을 소량 수출하고 있다. 인도는 2011년 2월에 자국 내 분유가격 상승이 우려로 탈지분유 및 전지분유의 수출을 금지하였다. 이후 2012년 6월 인도의 분유시장 여건이 개선되면서 수출금지를 해제 하였다. 인도의 2013년(1~9월) 탈지분유 수출량은 9만 5천 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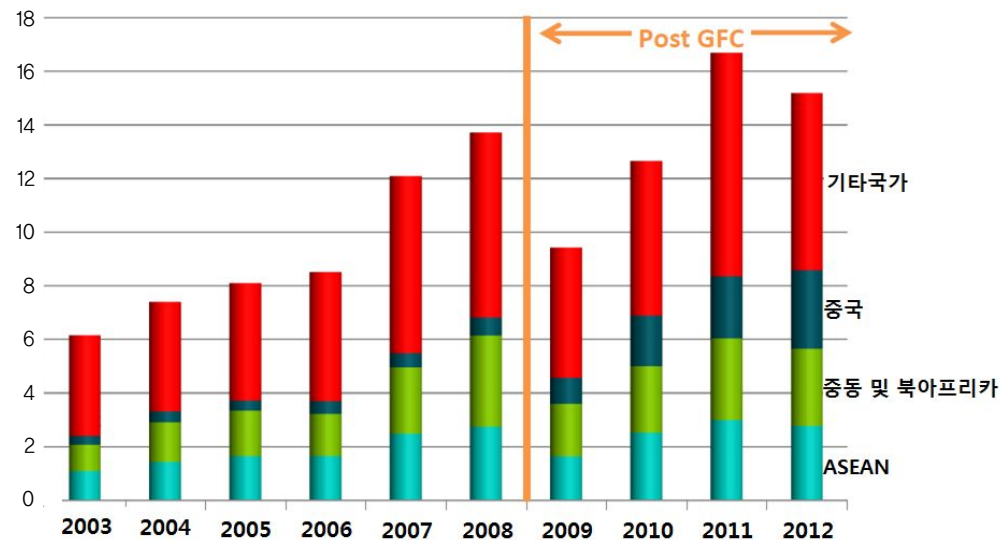
향후 인도는 유럽연합(EU)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의 원유 생산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유 생산량 증가로 인해 자국 내 유제품 수요 초과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인도의 탈지분유 수출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수출 국가는 지리적으로 근접한 동남아시아와 중동 국가로 예상된다.

3. 세계 유제품 수요 전망

2014/15년 아시아, 중동 및 북아프리카 신흥 경제국의 유제품에 대한 수입 수요는 증가가 예상된다. 중기에 있어 신흥 경제국의 수요 증가로 유제품의 세계 교역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수요 증가는 인구 증가, 소득 증가, 식단의 서구화에 기

그림 7 세계 분유 수입 현황

10억 달러(2013~14 미국 달러 기준)



주: GFC는 세계 금융위기(The Global Financial Crisis)의 약자임.

자료: Peter Collins, 「The outlook for Dairy: Outlook to 2018-19」, ABARES,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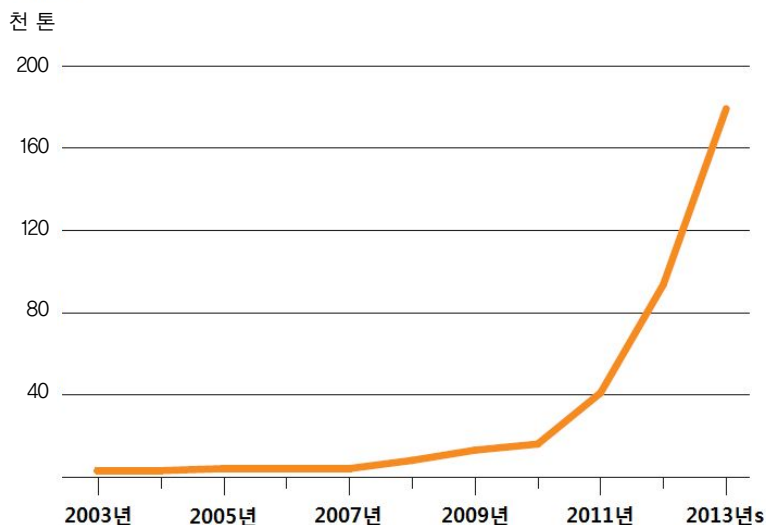
인한 것이다. 다수의 신흥 경제국들은 사육 규모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제품에 대한 자국 내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신흥 경제국들의 수입 의존도는 앞으로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3.1. 중국

2014년 중국의 원유 생산량은 정부의 원유 품질 개선을 목표로 하는 정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정책으로 다수의 소규모 생산자들이 낙농업에서 퇴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원유 생산량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2014년 유제품 수입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2013년에는 쇠고기 가격 상승에 따른 낙농가의 젖소 도축두수 증가로 젖소 사육두수가 감소하여 단기적으로 중국의 원유 생산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향후 몇 년 동안 분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중국의 전지분유와 탈지분유 수입량은 각각 62만 톤, 23만 5천 톤으로 40% 이상 증가하였다. 중국의 음용유(초고온 열처리)는 주로 독일, 뉴질랜드, 프랑스에서 수입되는데, 2013년 음용유 수입량은 18만 톤으로 2012년보다 약 두 배 증가하였다.

그림 8 중국의 음용유 수입 현황



주: s는 ABARES 예측치임

자료: Caitlin Murray, 「2014 OUTLOOK Agricultural commodities: Dairy Outlook to 2018-19」, ABARES, 2014.

중국에서는 인구 증가, 소비 지출 확대, 도시화 진전에 따른 유제품 수요 증가가 자국 내 원유 생산량 증가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 유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수입 조제분유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3.2. 아세안(ASEAN)

아세안은 국내 공급물량 부족으로 유제품 수입에 대한 수요는 높게 유지할 전망이며, 특히 수입 분유에 대한 수요 강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탈지분유 수입량 합계는 약 35만 톤이며, 전지분유 수입량 합계는 약 9만 톤으로 전망된다. 아세안은 세계 최대의 탈지분유 수입국이며, 앞으로도 수입량은 꾸준히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세안의 중기 원유 생산량은 크게 증가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아세안의 유제품 수입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분유에 대한 수입의 증가가 예상된다.

아세안에서 분유는 음용유로 환원되거나 버터, 팜 오일(Palm Oil) 등과 혼합하여 다른 유제품 생산에 사용된다. 회원국들의 소득 증가와 서구화되어가는 식습관에 따라 치즈와 같은 고급 유제품의 수입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3.3. 기타 국가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은 원유의 생산이 부족해 유제품 수입이 많으며, 특히 분유에 대한 수입이 많은 편이다. 단기 및 중기의 원유 생산량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늘어나는 자국 내 유제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유제품 수입을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EU)과 뉴질랜드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지역에 대규모 수출 실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의 2013년 원유 생산량 감소는 2014년 치즈와 버터의 수입량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망기간 동안 러시아의 원유 생산량은 정부 지원과 새로운 기술의 접목으로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원유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요의 증가로 향후 몇 년 동안 치즈와 버터 수입량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2014년 치즈 수입은 경기 호전으로 전년보다 3% 증가한 24만 5천 톤으로 전망된다. 중기에 일본의 치즈 수입량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일본 시장에서 호주산 점유율은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4. 호주 낙농업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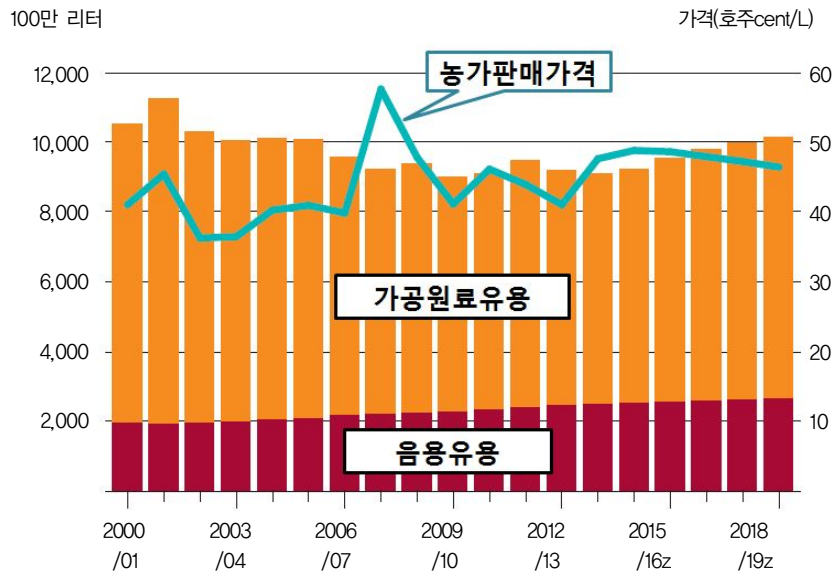
2014/15년 호주의 농가 원유 판매 가격(명목)은 세계 유제품 가격 상승과 호주 달러 약세로 전년보다 5% 상승한 리터당 50센트(호주 화폐 단위)로 전망된다.

중기에 호주의 농가 원유 판매 가격(실질가격, 2013/14=100)은 세계 유제품 가격의 하락 영향으로 하락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2018/19년 농가 원유 판매 가격(실질)은 리터당 46.5센트로 2013/14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중기 전망 가격은 2012/13년 이전 5년 평균 가격과 비교할 때, 약 9% 높은 수준이다.

4.1. 원유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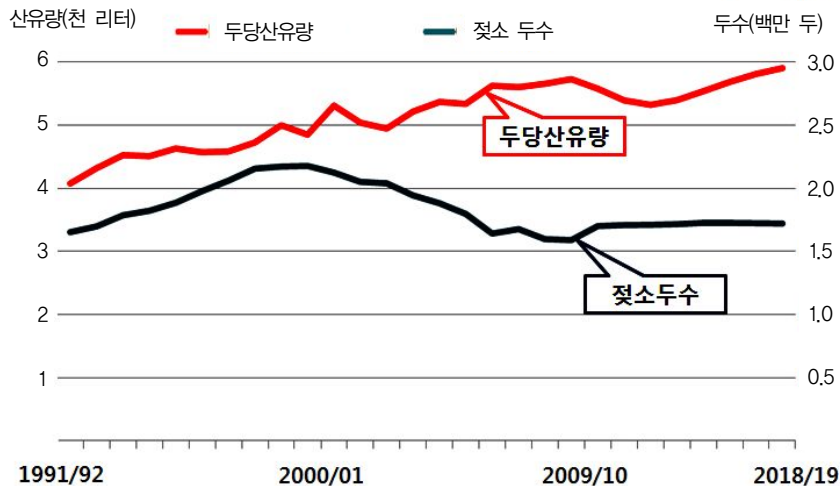
호주의 2013/14년 원유 생산량은 2013년도 하반기 원유 생산량이 전년 동기간 보다 3% 감소하면서 전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4/15년에는 농가 원유 판매 가격 상승과 기후 조건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보다 2% 증가한 92억 5천만 리터로 전망된다. 특히, 빅토리아(Victoria)와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에서의 원유 생산량 증가가 예상된다.

그림 9 호주 농가 원유 판매 가격과 원유 생산량



주: z는 ABARES의 전망치임. 원유 판매 가격의 단위는 리터당 센트(호주 화폐 단위)이며, 실질가격임(2013/14=100).
 자료: Caitlin Murray, 「2014 OUTLOOK Agricultural commodities: Dairy Outlook to 2018-19」, ABARES, 2014.

그림 10 호주 젖소 사육 두수와 마리당 산유량 추이



자료: Peter Collins, 「The outlook for Dairy: Outlook to 2018-19」, ABARES, 2014.

중기의 호주 원유 생산량은 마리당 산유량이 향상될 것으로 보여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2018/19년 원유 생산량은 102억 리터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젖소 사육 두수는 농가 원유 판매 가격 상승으로 단기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172만 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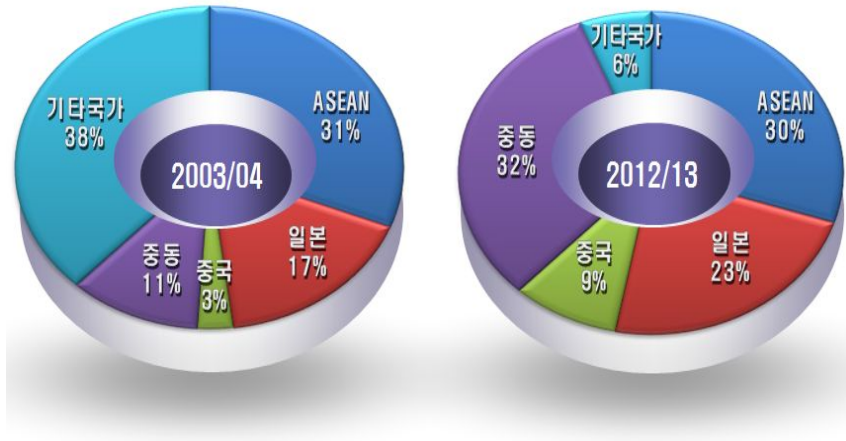
2012/13년 호주의 젖소 마리당 산유량은 젖소 개량과 사양 기술의 발달로 10년 전보다 약 10% 증가한 5,390리터였다. 향후 마리당 산유량은 계속 증가하여 2018/19년에는 5,901리터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과거 10년과 비교해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4.2. 유제품 수출

호주의 2014/15년 유제품 수출액은 세계 유제품가격 상승과 호주달러 약세로 전년보다 14% 증가한 34억 달러로 전망된다. 2013/14년 유제품 수출액은 전년보다 33% 증가한 약 30억 달러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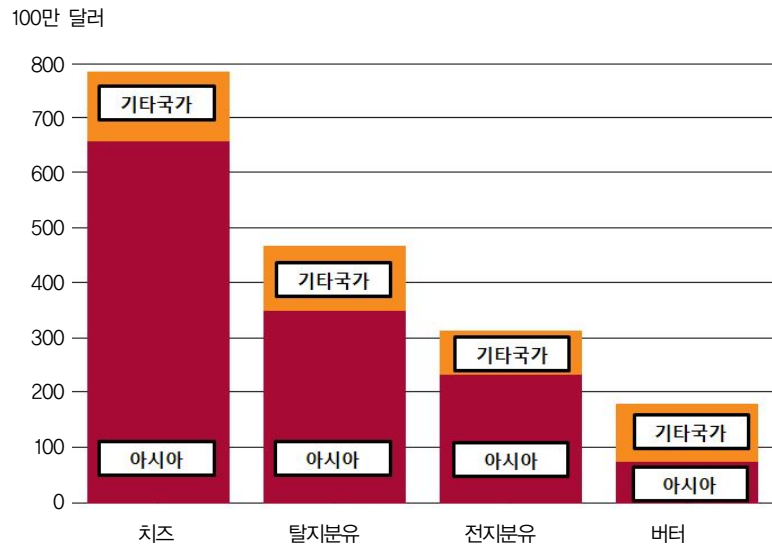
호주의 2018/19년 유제품 수출액은 약 36억 달러(실질, 호주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2/13년 호주의 유제품 수출액 중 75%가 아시아 국가가 차지할 만큼 호주의 유제품 수출은 아시아 국가들에 집중되어 있다.

그림 11 호주의 국가별 유제품 수출 비중



자료: Peter Collins, 「The outlook for Dairy: Outlook to 2018-19」, ABARES,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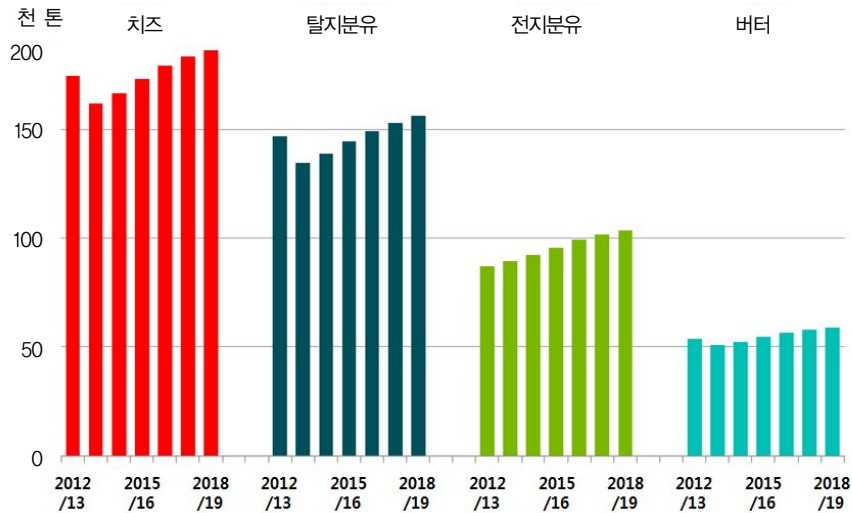
그림 12 호주의 품목별 유제품 수출현황(2012/13)



주: 호주달러 기준임

자료: Caitlin Murray, 「2014 OUTLOOK Agricultural commodities: Dairy Outlook to 2018-19」, ABARES, 2014.

그림 13 호주의 품목별 유제품 수출 전망



자료: Peter Collins, 「The outlook for Dairy: Outlook to 2018-19」, ABARES, 2014.

표 1 세계 유제품 가격 및 호주 낙농산업 전망

구분	단위	2011/12	2012/13 ^a	2013/14 ^d	2014/15 ^d	2015/16 ^e	2016/17 ^e	2017/18 ^e	2018/19 ^e
세계 유제품 가격									
버터									
- 명목	미국달러/톤	3,883	3,727	4,570	4,665	4,720	4,800	4,850	4,860
- 실질 ^b	미국달러/톤	4,025	3,791	4,570	4,576	4,523	4,490	4,433	4,344
탈지분유									
- 명목	미국달러/톤	3,233	3,731	4,700	4,815	4,925	5,025	5,100	5,155
- 실질 ^b	미국달러/톤	3,351	3,795	4,700	4,723	4,720	4,700	4,661	4,608
치즈									
- 명목	미국달러/톤	4,258	4,150	4,800	4,920	5,030	5,130	5,205	5,260
- 실질 ^b	미국달러/톤	4,413	4,221	4,800	4,826	4,820	4,799	4,757	4,702
호주									
젖소 사육 두수 ^b	천두	1,700	1,707	1,710	1,715	1,725	1,725	1,722	1,720
젖소 마리당 산유량	리터	5,577	5,390	5,322	5,394	5,536	5,681	5,807	5,901
생산량									
원유 전체	백만 리터	9,480	9,201	9,100	9,250	9,550	9,800	10,000	10,150
- 음용유용	백만 리터	2,389	2,452	2,481	2,511	2,541	2,571	2,602	2,633
- 가공원료유용	백만 리터	7,092	6,749	6,619	6,739	7,009	7,229	7,398	7,517

표 1 세계 유제품 가격 및 호주 낙농산업 전망 (계속)

구분	단위	2011/12	2012/13 ^a	2013/14 ^a	2014/15 ^b	2015/16 ^c	2016/17 ^c	2017/18 ^c	2018/19 ^c
버터 ^d	천 톤	120	118	117	119	124	127	130	132
치즈	천 톤	347	338	335	340	354	364	371	377
탈지분유	천 톤	230	224	222	225	234	241	246	250
전지분유	천 톤	140	109	108	109	114	117	119	121
농가원유판매가격									
- 명목	센트/리터	42.0	40.2	47.7	50.0	51.0	51.6	52.1	52.5
- 실질 ^f	센트/리터	43.9	41.1	47.7	48.9	48.7	48.0	47.3	46.5
수출량									
버터 ^d	천 톤	49	54	51	52	54	56	58	59
치즈	천 톤	161	174	162	166	173	179	184	187
탈지분유	천 톤	141	147	135	139	144	149	153	156
전지분유	천 톤	102	87	89	92	96	99	101	103
수출액(호주달러)									
- 명목	백만 달러	2,292	2,229	2,966	3,369	3,522	3,712	3,951	4,069
- 실질 ^f	백만 달러	2,396	2,278	2,966	3,293	3,361	3,455	3,586	3,606

주: a는 2013/14 미국 달러 기준, b는 6월 30일 기준, c는 버터기름, 버터 농축액, 건조 유지방 포함, d는 2013/14 호주 달러 기준, f는 ABARES 추정치, z는 ABARES 전망치임.

자료: Caitlin Murray, 2014, "Dairy Outlook to 2018-19," Agricultural commodities: March Quarter 2014, ABARES.

참고문헌

Caitlin Murray. 2014. Dairy Outlook to 2018-19. *Agricultural commodities: March Quarter 2014*. ABARES.

Peter Collins. 2014. The outlook for Dairy: Outlook to 2018-19.